



즉시 배포용: 2017년 1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의 33번째 시정 제안 발표: 획기적인 3가지 방면의 접근방식을 통해서 급등하는 처방약 가격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급등하는 처방약 가격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면의 접근방식으로 구성됩니다.

-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처방약 가격 바가지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 보호.
- 과도한 가격을 청구하는 약품 제조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자금을 다음 연도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보험사들과 기업체들에 재할당.
- 약품 가격을 올리는 중간 매개자들에 의한 남용적 사업 실무로부터 납세자 보호.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방약의 치솟 가격은 국가가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싸워온 문제이며, 우리가 이전에 너무도 많이 경험해 왔듯이, 뉴욕은 이를 진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속적으로 인상되는 약품 가격은 납세자들의 지갑과 기업체들의 최종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저해할뿐이지만, 생명을 구하는 약품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그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결과가 비참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질병에 걸린 누군가가 단지 다른 누군가가 좀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도록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양심적이며, 반드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에 걸쳐, 약품 가격, 특히 브랜드가 있는 전문 약품은 국가적으로 과도하게 인상되어왔습니다. 예컨대, 처방약 중 85%가 제네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브랜드가 있는 약품의 매출은 1984년에 약 10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2,000억 달러로 증가되었습니다. 더욱이, 전체 처방약 중 단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약품들은 지난 5년에 걸쳐 전체 약품 가격 증가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저가로 이용 가능했던 약품들조차도 부당하고 갑작스럽게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2007년 이래 500%까지 가격이 폭등한 에피펜(EpiPen) 가격의 최근 폭등입니다.

이러한 약품 가격의 급등은 지난 3년에 걸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17억 달러의 약품 관련 비용을 어쩔 수 없이 부담한 뉴욕 납세자들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과중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약품 가격은 뉴욕의 상업 보험 시장에 대해서 가장 큰 보험료 인상 요인이었습니다. 2015년에 의약품 비용은 뉴욕의 총 보험료 중 26%를 차지했으며, 이는 총 보험료에서 단지 18%만을 차지한 입원 환자 입원 비용보다 훨씬 더 큰 금액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처방약의 높은 가격이 생명을 구하는 약품에 대한 가정들의 이용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략 77%의 미국인들이 그들의 처방약 가격을 부담할 여력이 안 되어서, 약값 때문에 그들의 약품 복용을 포기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고, 3가지 측면의 접근방식을 통해서 처방약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첫째, 주지사의 계획은 주 정부의 약품 이용 심사 위원회(**Drug Utilization Review Board**)에 의해서 권고된 벤치마크 가격을 초과하는 일체의 금액에 대해서 100%의 보조적 리베이트를 요구함으로써,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을 상환받는 소정의 고가 처방약에 대해 가격 상한선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주지사의 계획의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러한 약품들이 우리 주 내로 판매될 때, 이러한 고가 약품의 가격이 메디케이드 맥락에서 약품 이용 심사 위원회에 의해 권고된 벤치마크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수입은 금융서비스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전용 기금에 예치될 것입니다. 과징금으로부터 징수된 수입은 다음 연도에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험사들에 다시 할당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계획 중 세 번째 조치는 많은 사람들이 처방약 가격 인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 **Pharmacy Benefit Manager**로 알려진 중간 매개자들에 의한 불공정한 사업 실무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Pharmacy Benefit Manager**들은 보험 플랜들과 자가 보험 방식의 고용주들을 위해서 약품 가격을 협상하는 브로커들입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 등은 이 산업에 이해상충과 고객들의 비용으로 전가되는 미공개 약정이 만연되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Pharmacy Benefit Manager**들은 즉시 주 정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소정 약품의 사용을 증진하는 것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나 혜택과 아울러,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금전적 약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령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제안에서는 **Pharmacy Benefit Manager**들이 2019년부터 주 정부의 금융서비스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는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사업 실무를 수행하거나, 금융서비스부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Pharmacy Benefit Manager**의 라이선스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